

변화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성산종돈장



오 재 곤 대표
성산종돈장

1. 경력

1992 ~	성산종돈장 경영
2001.10.09	장성군민의 상
2002 ~	장성군 북일면 성산리 이장
2003 ~	도드람양돈농협 이사
2006 ~	한국농수산대학 현장 교수
2009.11.19	환경부장관 표창
2010.12.31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2011 ~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정책심의위원
2012 ~	(사)대한한돈협회 광주장성지부 지부장
2014. 2 ~ 2018. 2	한국종돈업경영인회 8대, 9대 회장
2014. 4 ~	돼지개량네트워크 추진위원
2014. 7 ~	(사)한국축산식품협회 부회장
2016 ~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6.11.11	전라남도 농업인대상
2017.7.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지식농업인호
2017.03.31	전남 농업을 빛낸 사람들 공로패
2018 ~	(사)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 회장
2018 ~ 2019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2019.05.0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장
2019 ~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위원





변화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성산종돈장

2. 성산종돈장 농장 현황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GGP + GP 운영

2-1. 성산종돈장 현황 (철저한 차단방역)



방역초소운영



석회가루 도포



차량소독조 통과

2020. 10월 양돈연구 59

2-1. 성산종돈장 현황 (철저한 차단방역)



차량 훈증 소독



사우나 열소독



자외선 대인소독

성산종돈 농장 현황 (철저한 차단방역)



차량소독



샤워실



농장옷 환복



물품반입창고



돈사별 장화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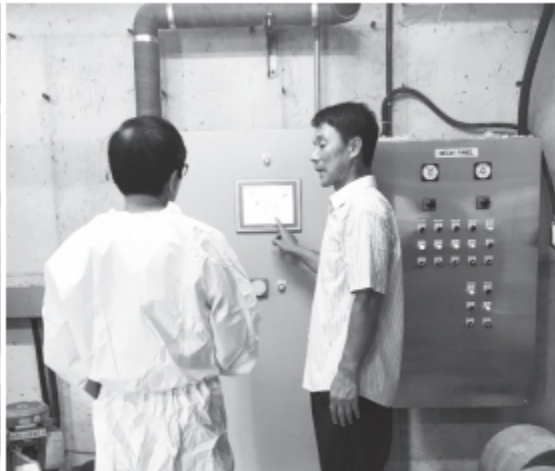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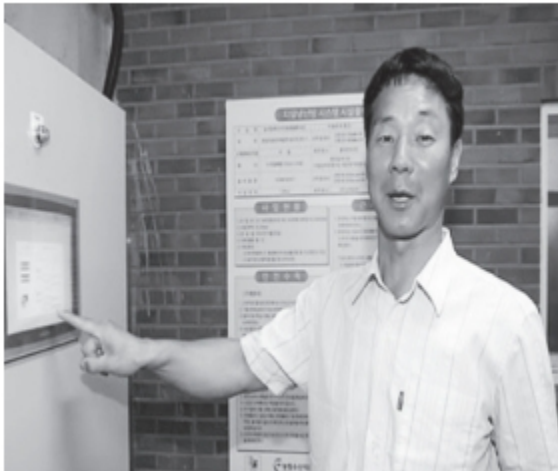
돈방별 발판소독조

2-2. 성산종돈 농장 현황 (기본에 충실한 관리)



- 위생 및 깨끗한 축산업을 요구하는 소비자 눈높이 맞추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 동물복지, 첨단 시설, 냄새저감 등을 통한 양돈산업의 선구자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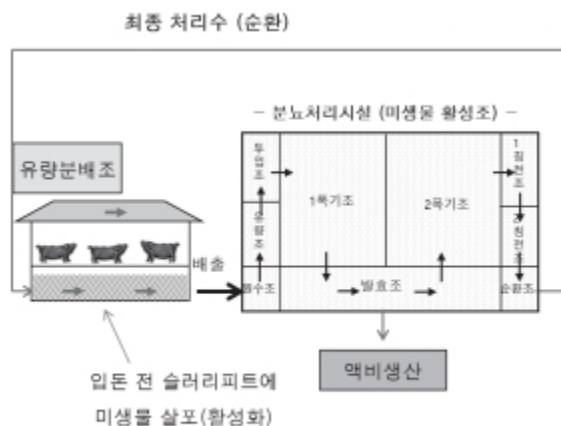
2-3. 성산종돈 농장 현황 (지열 냉난방시스템 도입)



- 지열 냉난방 에너지 시스템 도입
- 축사 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돼지에게 편안한 환경 조성
- 전기세 및 유류비 절감으로 연평균 5천만원 상당의 비용 절감
- 고품질 종돈 생산을 통한 원가 경쟁력 향상

3. 미생물을 활용한 순환형 돈사 운영

✓ 순환시스템



돈사 운영조건

- 바닥 : 전면 슬랏지
- 슬러리피트 용량 : 약 340ton
- 슬러리피트 깊이 : 약 1.1m
(피트배기장치는 없음)
- 분뇨 배출 : 자연 유하방식
- 분뇨 배설량 : 약 4.2ton/d (830두)
- 순환수량 : 약 42ton/d
- 액비 생산 : 6~7ton/일 (발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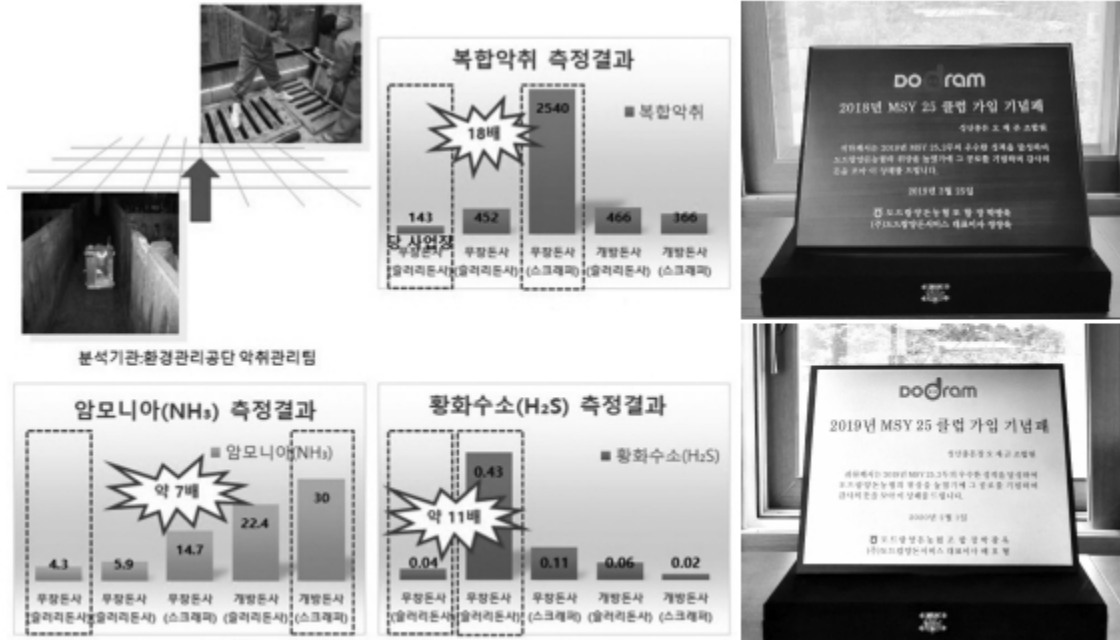


〈돈사 배출수(좌) 및 최종 처리수(우)〉



〈최종 처리수〉

3-1. 미생물을 활용한 주요 특징



- 돈사 내 암모니아, 황화수소, 복합악취 등 유해가스를 감소시켜 **사육환경 개선**
-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출하일령 10일 단축 및 호흡기 등 질병 감소를 통한 **생산성 증대**

3-2. 전남한돈친환경 미생물 공장 설립



3-2. 전남한돈친환경 미생물 공장 설립

- 2018년 4월 농업회사법인 전남한돈친환경 주식회사 설립
- 농가 공동출자를 도모하여 저렴한 가격에 농가들이 구매하도록 마련
- 각 농가의 개별 구입보다 전라남도 보조사업을 활용하여 60% 이상 비용 절감
- 복합생균효소제, 생산 공급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남도 내 311개 농가 참여 중

4. 지역사회 발전 및 양돈산업 주요 활동





- 한국농수산대학 현장교수로 26명의 CEO 양성 도제 교육 실시
- '월간 한돈' 등 각종 축산 전문잡지에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들을 20회 이상 기고
- '월간 피그엔포크한돈'지의 편집자로 활동하며 직접 개발한 신지식, 기술을 공유



<인터뷰>ASF 성금모금 '결실'...오재곤 위원장

모두가 피해지역 아픔 나누고자 한 마음

이영호 yd771@naver.com | 등록 2020.03.06 10:40:24

인 | 0 | 0 | 0 | 0 | 0

1축산신문 이영호 기자

장영남 불구 대부분 농가 모금 동참

피해지역 소외감 해소 계기 의미

기대 이상 성과...산업계에도 감사



"금역의 땅고, 직업을 떠나 전국의 모든 농가들이 ASF 피해지역과 아픔을 함께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 그만큼 한돈농가들이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을 돕기 위한 전국 단위의 조직적인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 화제가 됐던 대한한돈협회 ASF성금모금위원회 오재곤 위원장은 "영광을 얻어냈던 것 같다"며 이번 모금 사업을 평가했다.

"일대만 성금 전달식에 참여했던 ASF 피해지역 한돈농가들의 참여 가장 기억에 남는다."

- ASF 성금모금대책위원장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 농가 돕기 모금운동 실시
- 농가, 양돈농협, 사료,약품,종돈,기자재업체의 적극적 동참과 기탁 도모
- 전국 한돈농가와 전 사업계의 성원과 지지를 모으는데 역할

5. 맺음말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런 큰상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우리 양돈산업은 코로나19, ASF의 위협 등으로 일척간두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양돈을 함에 있어 악취로 인한 환경문제 및 각종 민원발생 등으로 양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 양돈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고 스스로 노력하여 거짓 없이 우리의 모습을 소비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변하면 소비자의 양돈에 대한 의식 또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은 분명 존재하나 양돈인들은 하나로 뭉쳐 슬기롭게 극복하여 헤쳐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대한민국 양돈인들의 사업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